

# 영화 '게이트', 현실의 답답함 날리는 '사이다' 웃음



## 배우들의 코믹 연기 통해 웃음 자아내 최순실 국정농단 상기시켜 공감 유발

유쾌한 금고털이단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게이트'는 배우들의 코믹 연기를 통해 웃음을 자아낸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 농단을 상기시키는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가 함께 담겨 공감을 유발한다.

'게이트'(감독 신재호·제작 삼삼공구 브라더스)의 언론시사회 및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배우 정려원 임창정 정상훈 이경영 이문식 김도훈 신재호 감독이 참석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게이트'는 금고털이를 위해 몽친 수상한 녀석들이 예상치 못한 절대 금고를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먼저 신재호 감독이 영화를 연출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기준에도 범죄 오락 영화는 많았고, 또 작년부터 사회가 뒤숭숭

하지 않았냐. 취업도 안 되고, 경기 도 좋지 않잖아.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을 한 번 털어보자는 유쾌한 상상만 했고, 거기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재호 감독의 말처럼 '게이트'는 무거운 범죄를 다루고 있음에도 털이단을 구성하는 배우들의 코믹 연기를 통해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에 신재호 감독은 "아무래도 금고 털이단을 이루는 배우들이 많이 나온다. 변두리 어벤저스 같은 느낌을 내 보고 싶었다"고 영화에 점수를 둔 부분을 밝히며, 이를 구현해 준 배우들의 '케미스트리'에 만족을 표했다.

특히 신재호 감독은 사건의 주인공 공인 기억을 잃은 검사 규철 역의 임창정에 대해 "임창정은 항상 습작을 하거나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리뷰를 들곤 했다"는 인연을 털어놓으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함께 하게 됐고,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실제로 캐스팅에도 도움을 주며 제작 과정에 참여한 임창정은 "나는 이번 영화의 악역을 담당하는 사제업자 역할에 정상훈을 추천했는데 함께 하게 돼 좋았다"며 "정려원과 이경영, 이문식 등 배우들이 뒤이어 캐스팅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누가 캐스팅이 됐다는 이야기를 감독님에게 들을 때 마다 기분이 좋았다"고 말해 배우들의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금고 털이를 설계하는 소은 역을 맡은 정려원은 실제로도 현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밝혀 더욱 기대를 모았다. "예전부터 유쾌한 영화나 나아가 블랙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는 위시리스트를 써두긴 했다. 시나리오를 보는데 '히가' 싶었다"고 밝힌 정려원은 "실제로도 신배들과 현장에서 너무 재밌게 촬영했다. 또 매번 캐릭터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을 보여 많이 배웠다. 잘 맞았던 것 같다"는 일화를 덧붙였다.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를 밝은 톤으로 진행되지만, 부정하게 돈을 모

은 기득권의 금고를 털다는 설정을 담은 만큼,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묵직하게 담아내기도 한다. 특히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를 떠올리게 하며 장면들이 등장해 현실을 상기시킨다.

이와 관련해 임창정은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감독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밝히며 "우리가 모르는 나쁜 비자금 이야기라 생각했다. 그렇게 보았다면 부정하진 않겠지만, 노골적이진 않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호 감독은 "갑들의 금고를 털다는 내용을 기획했다. 그러다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터졌다. 영화인이라면 영화가 현실보다 더 시시해진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 뉴스가 영화보다 더 재밌는 시기였다"고 밝히며 "내 시나리오도 시시해보였고, 그래서 사회 풍자적 요소를 넣고 싶었다"며 풍자적 요소를 기뻐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웃음은 물론, 현실감 넘치는 이야기를 통해 공감을 자신한 '게이트'가 관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개봉.

## '키스 먼저 할까요', 어른들의 서툰지만 진짜 사랑



'키스 먼저 할까요' 왜 하필 키스일까.

'제목'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을 대표하거나 내용을 보이기 위해 붙이는 이름"이다.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그 콘텐츠를 가장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라는 뜻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하면 대중이 해당 콘텐츠를 1차적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제목이다. 그만큼 제목은 중요한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내일(20일) 첫 방송되는 SBS 새 월화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극본 배유미/연출 손정현/제작 SM C&C)는 매우 특별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직선적이고도 솔직한, 그래서 더욱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궁금해지는 제목을 가진 것이다.

'키스 먼저 할까요'는 제목만으로도 예비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왜 '키스 먼저 할까요'

일까. 특별한 제목 '키스 먼저 할까요'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자.

◆ 솔직함과 과감함. 그 뒤에 자리잡은 어른들의 서툰 사랑

'키스 먼저 할까요'라는 제목은 어찌 보면 과감하다 싶을 정도로도 발칙하고 솔직하다. 간질간질 사랑 앞에 썩 타는 과정이 필요한 어린애들의 계산적인 사랑과는 색갈부터 다른 것이다. 드라마 장르가 '리얼엔터테인먼트'인 것도 이 같은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과감하고 솔직한 것이 전부 아니다. 그 뒤에 자리잡은 어른들의 사랑은 사실 서툰다. 도발적으로 보이지만 사랑이란 감정 앞에 안절부절 못하고 상대에게 어떻게 다가설지 망설인다. 과감하게 내뱉은 '키스 먼저 할까요'라는 말 뒤에, 그 과감한 말을 하기 위해 몇 번이고 망설였을 어른들의 서툰 사

랑이 있다. 서툴러서 공감되고 더 가슴 떨릴 어른들의 사랑이 펼쳐진 것이다.

◆ '키스 먼저 할까요' 속 키스의 상징적 의미

키스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달콤한 스킨십이다. 하지만 '키스 먼저 할까요' 속 키스는 다른 의미도 담고 있다. 극중 남녀 주인공 손무한(감우성)과 안순진(김신아)은 모두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사람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런 두 사람에게 사랑이 찾아온다. '키스 먼저 할까요' 속 키스는 불현듯 찾아온, 진짜 사랑을 상징한다. 키스로 시작될 이들의 특별한 사랑이 궁금하고 기대된다.

한편 SBS 새 월화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는 성숙한 사람들의 '외로' 서툰 사랑을 그린 리얼 멜로다. 좀 살아본 사람들의 상상물 가, 어디서든 본 적 없는 사랑이야기 '키스 먼저 할까요'는 20일 밤 10시 1회부터 4회까지 연속 방송된다.

## '효리네 민박2' 윤아의 눈물 그리고 위로



윤아는 눈 내리는 풍경과 함께 잔잔히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을 흘렸고 이상순은 윤아의 눈물에 당황하며 이효리를 쳐다봤다. 이효리는 "원래 가수들은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나지 않냐고 말했고 윤아는 '슬프다'고 말한 뒤 멋지게 웃었다."

윤아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함을 느낀 이효리는 "바람 쐬고 올라"며 말을 건넸다. 그러면서도 윤아를 지켜봐주는 모습을 통해 윤아의 눈물을 잘 이해하는 친배의 따뜻한 배려를 읽을 수 있었다.

윤아는 한동안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 눈을 비비려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마음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소담하게 내리는 제주의 눈과 민박집, 흘러나오는 음악, 깨끗이 빗질하는 윤아의 모습 등이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며 시청자들에게도 힐링을 줬다.

이날 '효리네 민박2' 의시청률은 4.6%(유료방송기구 기준)로, 앞의 두 회(1회 8.016%, 2회 7.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시청률 하락은 같은 시간대에 이상화 선수의 출전으로 눈길을 모았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스피드스케이팅 500m' 경기가 지상파 채널에서 생중계된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간대 종편 시청률로는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켰다.

한편 '효리네 민박2'는 방송인 이효리-이상순 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제주의 집에서 일반인들이 북오며 여행을 통해 힐링하는 모습을 담은 슈박에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9시에 jtb를 통해 방송된다.

## 아가씨, 英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수상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2016)가 제71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이하 BAFTA)에서 외국어영화상(Best Film in the English Language)을 수상했다. 제6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던 것에 이어 해외 평단에서 다시 한번 민들새와 배우들의 열연을 인정받은 것이다.

BAFTA는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열린 71번째 시상식에서 올해의 외국어영화상으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선정했다. BAFTA는 세계 최대의 영화제라 할 수 있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영국 버전이다. 영국 영화 및 영화인간의 시상 부문이 따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BAFTA 측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감독과 배우들을 포함해 아

가씨' 팀 가운데 시상식에 참석한 사람은 없다"며 "하지만 협회에서 이 트로피를 확실하게 전달해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외국어영화상 후보로는 '아가씨'를 비롯해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갑보다야 딸이 기억한다'(감독 안젤리나 졸리), '러브리스'(감독 안드레이 즈비야긴체프), '엘르'(감독 폴 버호벤), '제일잔'(감독 이우거르 파디) 등 다섯 작품들이 올라 열린 경연을 벌였다.

앞서 미국 영화 전문 매체 힐리우드리포터는 수석 평론가 토드 매카시가 선정한 올해의 영화 8위에 올리며 작품성을 극찬했다. '아가씨'는 또 미국 비평가협회상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수상, 보스턴 비평가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올해의 영화 10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소설 '핑거스미스'를 각색한 이 작품은 박 감독의 칼 같은 연출력부터 김민희 김태리 조진웅 하정우 등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전면에 걸쳐 호평 받았다.

오늘의 순세 2018년 2월 20일 화요일 (음력 1월 5일)

▶**띠띠** 자녀들과 대화할 필요할 때. 사, 오, 자 성씨에게 서운하게 하면 자신의 마음도 불편할 듯. 낮에 문단속이 필요하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따른다. 2, 8, 9월생 동업은 시기상조이니 생각하지 마라. 자신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라.

▶**띠띠** '민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도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 10, 11, 12월생 취업에 자신 없으면 빨간색으로 치장해 새로운 마음 갖고 추진하라. 쥐, 토끼, 닭띠가 인생 선배로서 어려움을 털어줄 테니 친분을 쌓을 것.

▶**띠띠** 2, 3, 9, 11월생은 가족끼리 재물을 논하지 마라. 가진 것까지 모두 잃을 수. 오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시험해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성격을 차분하게. 말을 적게 할 것. 그, 바, 자 성씨와 의논하는 것이 좋다.

▶**띠띠**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두고,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반성하라. 불만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쯤은 시인하면서 사업에도 분발하라. 욕심을 버리고 추진하면 1, 6, 7월생 크게 이룬다. 서쪽이 길하다.

▶**띠띠** 금전 거래는 굴치만 아프고, 우정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애정은 서서히 잡아야 급히 다루다 눈에 빠질까 염려된다. 그, 바, 사, 자 성씨 서, 남쪽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띠띠** 4, 5, 11월생은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게 접근하는 자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짜증 내지 말고 지혜롭게 승부를 걸어 보라. 돌보다 하나로 만족할 것. 구설 심함. 그, 바, 사 성씨는 사람과 자식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라.

▶**띠띠** 2, 8, 9월생 능력을 발휘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다. 그, 오, 자 성씨 자녀 관계와 애정의 난관을 심사숙고해 일말 소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라. 애정은 솔직하게 표현하면 기본 좋은 핑크빛 하루를 보낼 수 있겠다.

▶**띠띠** 그, 자, 승 성씨 용기가 필요할 때다. 이제까지 끌어오던 일 안 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 힘이 약하면 동업도 좋겠다. 다만 뱀, 뱀 돼지띠는 피하라. 미혼 여성 1, 2, 10월생은 연인 때문에 애매하지만 토끼, 닭띠가 힘이 돼줄 듯.

▶**띠띠** 무리하게 시작했으나 잘 안 돼 애단다. 1, 2, 9월생 남쪽 사람과 상의할 것. 뒷사람과 협력하면 성취할 기운이 강하다. 애정적으로 너무 연연해 버리면 직장상관 건강에도 이상이 일 듯. 동쪽이 길.

▶**띠띠** 바, 오, 자 성씨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해야 구실을 얻을 수 있다. 미혼인 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성 간에는 항상 주의해야 마음의 피해를 면할 수 있다. 가정의 우환을 막는 길은 배를 남쪽으로 두지 않는 것.

▶**띠띠** 바, 오, 자, 승 성씨는 혼자는 풀리지 않으나 쥐, 말, 양, 닭띠와 상의하면 쉽게 풀릴 듯. 가도 가도 끝이 없다는 절망적인 판단은 시기상조임을 알고 용기를 가질 것. 남이 아닌 연인에게 냉정히 대하는 중지 않으니 따뜻하게 대하라. 북, 동쪽이 길.

▶**띠띠** 맺고 끊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 8, 12월생 과욕은 금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 연행을 조심하라. 망신 수 있다. 그, 바, 오 성씨는 토끼, 뱀, 닭띠에게 잘 못한 적 없나 생각해보라.